

출제문제

〈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인들의 지위는 스스로 획득되지 않고 부여된다는 것이다. 노인은 생물학적 운명을 겪게 되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비생산적인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의 쇠퇴 곡선은 집단의 재원에 따라 빨리 혹은 더디게 내려가기도 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40세에 쇠퇴가 시작되는가 하면 다른 사회에서는 80세에 시작된다. 또 사회가 비교적 번창하면 노인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즉 사회가 거추장스런 짐으로 여기는 노인과, 집단 구성원들이 노인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부를 어느 정도 희생하기로 결정한 집단에 속한 노인의 전망은 많은 차이가 있다. 노인의 물질적 조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치 또한 문제가 된다. 노인은 대우를 잘 받으며 경멸당하거나 아니면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위는 각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달려 있다. 쇠퇴라는 말은 어떤 목표에 가까이 가거나 혹은 멀어져 가는 어떤 움직임과 관계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단지 그럭저럭 살아가려고만 하는 집단에서 쓸모없는 입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쇠퇴를 의미한다. 반대로 선조들과 신비적으로 맺어져 정신적인 생존을 바라는 집단이라면, 과거와 동시에 내세에 속해 있는 노인은 그 집단의 화신이 된다. 그리하여 가장 심한 육체적인 노쇠함이 생의 절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정점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에 위치한다.

〈나〉

2006년 미국의 수술기구 제조회사 엔지니어가 50년 된 낡은 공장 건물에서 생산현장을 자랑하고 있었다. 당시 이 회사는 독일과 미국에 공장이 있었다. 그는 고객들의 주문에 의해 설계된 복잡한 수술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숙련된 노동력을 자랑했다. “무게와 느낌이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을 말해줍니다. 외과 의사들은 의과대학 시절 이걸로 훈련을 받고 평생 이걸 사용하죠.” 그는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해 왔으며, 수만 시간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 노동자들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곧 이 회사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시장에서 저비용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본국에서 최고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제품을 아시아에서는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상품을 살 수 없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다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 바로 그 엔지니어가 중국에 새로 지은 공장을 자랑하고 있었다.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들인 새 노동자들이 수술기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만든 제품은 독일과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비교할 때 광택이 조금 덜 난다는 것 외에는 거의 비슷했다. 회사는 스위스에서 중국 현지로 값비싼 제조기기를 들여와 노동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2008년 중국 공장은 100명이 넘는 새로운 노동자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새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공장을 증설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 엔지니어가 대답했다. “옛날에 봤던 그 스위스 기계 생각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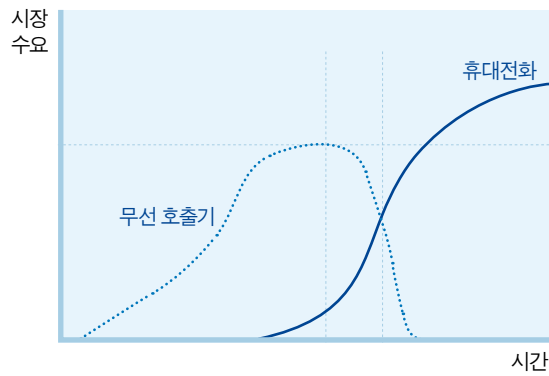
쥬? 중국 회사에서 일하는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친구들이 카피 제품을 만들어줬죠. 1/5 가격에 말입니다. 이제 생산라인 대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올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해지지 않은 사실은 이것이다. 한때 너무나 소중했던, 미국과 독일의 공장에 있는 세계 최고의 숙련공들이 모두 실직했다는 것.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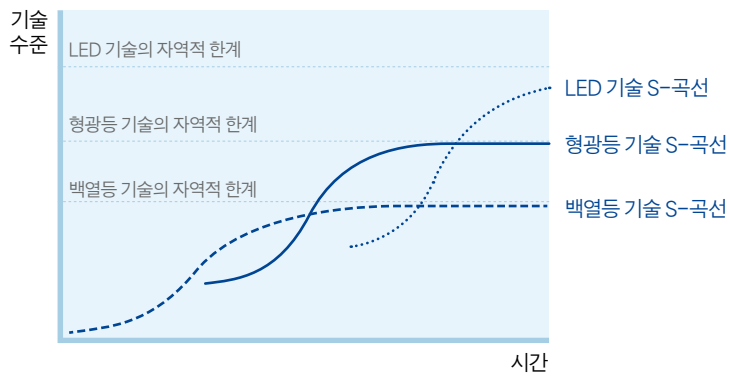
인간 본성은 유연하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가치 기준, 기대,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변화시켜 왔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어, 글쓰기, 법, 과학 같은 발명품들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현재의 삶에 뿌리내려 있어서, 과거에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향유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시민적', 아니 더 나아가 '인간적'이라고 여기는 것의 상당수는 오래전에는 없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더 많이 얻었을 뿐더러, 우리가 영리하고 현명하다면 이런 추세들을 예견할 더 나은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기술의 대체와 관련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술에서는 우리의 실제 선택이 중요하다. 비록 미리 정해진 발달 형태에 제약을 받을지라도, 한 기술 단계의 자기 보존, 자기 연장, 자기 성장의 충동은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현상이 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기존의 기술과 충돌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폭력적 대체 대신에 우리는 각각의 기술이 나름의 의제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이냐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기술에 대한 요구 수준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의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위 모바일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이 필요하겠지만, 화산폭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간단한 기술을 응용한 통신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연료가 부족한 인도 농촌 지역에서는 최신 첨단기술이 적용된 주방기기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한 기술을 적용하여 태양열로 가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리용 냄비가 더 많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최신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조금 낮은 수준의 기술들도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1.

〈그림 1〉, 〈그림 2〉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노인을 보는 관점을 해석하시오. (1,000±100자)



〈그림 1〉 이동통신 기기의 시장수요곡선



〈그림 2〉 조명기기 관련 기술의 S-곡선

출제문제

〈가〉

욕망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는 욕심과 비슷한 의미로 자주 쓰이는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 욕망은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욕의 의미가 아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이를 이루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강령과도 같다. 나 자신과 세상의 발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개인의 현명한 욕심.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만 앞서는 열정뿐 아니라 강인한 의지까지 지닐 수 있어야 비로소 사는 이유와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세속적인 것들을 매우 좋아한다. 예쁘고 화려하며 즐겁고 맛있는 것들을 매우 사랑한다. 외모도 매력적이고 싶고, 화려하고 멋진 장소에서 먹고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가족들에게는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주고 싶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멋진 선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그만큼 나는 평범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이런 욕심은 항상 나를 거듭 깨우고 응원해 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지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나의 소박한 욕심은 나를 응원해주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은 곧 나를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이는 점차 내 인생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욕망으로 발전해갔다.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며 무소유의 미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얻는 것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단순히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거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행복하다는 충언은 과감히 잊자. “내가 원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냥 포기하자!” 등 소극적인 마음도 그만 지워버리자.

이제 욕망도 욕심도 크게 갖고 많이 이루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선비처럼 청빈하게 살 수 있다면야 무얼 더 논하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하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과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마음껏 욕망하자. 단, 현명하고 아름답게 욕망하자. 나를 위해 마음껏 욕망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복에도, 또 내가 속한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아름답게 욕망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라는 어려운 조언보다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훨씬 더 현실적이며 행복한 조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

행복의 성취는 일정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전제로 한다. 한 국가 내에서 보면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일단 한 가정이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합류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다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그 경계가 되는 변곡점(變曲點)이 1990년대 중반에 1인당 고작 20,000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오늘날의 통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00달러

에 해당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라야드(Richard Layard)는 세계적으로 국가의 행복지수는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에 도달할 때 상승을 멈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상을 뒤엎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첫 번째는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기대치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사치품으로 여겼던 물건이 올해에는 필수품으로 둔갑한다. 여러 차례의 연구에서 소득 증가의 35~60%가 이러한 기대치 상승효과로 상쇄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소득이 10,000달러 증가하면 그 중 3,500~6,000달러를 '필수'로 간주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더 이상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해석에서는 사회적 비교를 원인으로 꼽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심할수록, 소비가 증가해도 그다지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이러한 지위 효과를 매우 중시하는 존재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복은 이웃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그 낙폭도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른바 트레드밀(treadmill) 효과는 자신이 더욱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려도 타인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므로 좀처럼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다〉

미국 동부의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Amish)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그들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인간 대부분은 개인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상승을 추구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며 존경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욕망들이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 욕망들이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선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한다. 그런데 아미시인들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옷을 입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치를 위해서 같은 옷을 입는다. 만일 당신이 아미시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미시인들의 마차는 다 똑같은 모습이다. 누구의 마차가 더 눈에 띄다든지 하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아미시인이 아닌 다른 미국인들은 친구나 이웃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미시인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종교적 경건함과 절제를 통한 행복을 위해 아미시인들이 욕망을 금기시하는 것은 전형적(專橫的)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농기구 운반을 위해 헛간에 트랙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작 원래의 목적인, 집에서 떨어져 있는 밭을 가는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밭에서 트랙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농장을 벗어나 시내까지 끌고 갈 것이고, 마차로 운반하기 힘든 짐들을 싣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내에 간 김에 식료품을 구입해서 싣고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보다 더 편리한 자동

차를 항상 몰고 다니게 될 것이다. 점차 자동차로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빈번하게 되어 결국 아미시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아미시인들은 집에 전기선을 끌어들이는 것과 전화를 놓는 것을 금지한다. 그들은 이렇게 욕망에 한계를 두는 강력한 삶의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

2.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비교하고, <나>에서 제시된 해석을 전제로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1,000±100자)

※ 모범답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이번 논술시험은 기술문명사회가 구성하는 노년의 가치를 분석하는 논제이다.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독해하는 능력과 이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 논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개념 ‘노년’과 ‘기술’ 사이의 상동성을 분석, 추론하는 사유 능력이 요구된다. 수험생들은 기술의 대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분석하고 이를 노년에 대한 관점과 연결지어, 기술에 대한 가치구성과 노년에 대한 가치구성의 상동적 관계를 분석 설명한다.

기술문명사회에서 노년의 문제는 젊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늙음이 거부되고 젊음의 유지가 모두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대체주기가 짧아지고 신기술이 폭력적으로 대체되는 기술문명사회에서는 효율성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가치 역시도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젊은 것, 새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심으로 구성될 때 노년은 ‘폐물’로 취급된다. 젊음을 특권화하는 기술중심사회의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 사회의 목표가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잣대가 된다는 원리를 추론하는 능력을 묻고자 한다.

제시문 <가>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노년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노인의 가치와 지위는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달려 있다”는 대목이 이 글의 주제문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에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수험생은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구성력 등을 발휘해야 한다.

첫째, 제시문들은 사회 현상과 노년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는 글을 제시하였다. 둘째, 논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기술대체와 공존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연결짓도록 구성하였다.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시몬느 드 보부아르 『노년』에서 발췌

이 제시문의 주제는 노년의 지위는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달려 있다.”는 대목이다. 그리고 “쇠퇴는 그 목적에 가까이 가거나 멀어져 가는 움직임과 관계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라는 다음 문장에서 목표를 기점으로 성장과 쇠퇴로 나뉜다는 의미를 분석해낼 수 있다. 노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신기술의 효율성, 즉 새로움을 목표로 하는 기술문명사회의 노년은 쇠퇴, 혹은 집단에서 쓸모없는 입이 된다.

제시문 <나> : 테드 C 피시먼 『회색쇼크』에서 발췌

이 제시문은 기술대체와 저임금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기술의 효율성이 목표로 설정될 때 숙련된 노동자들 역시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된다. 기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기술과 노동력에서 폭력적 대체가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케빈 켈리 『기술의 충격』에서 발췌한 내용과 중간기술에 대한 설명을 결합하여 재구성.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대목이 주제문이다. 기술이 폭력적으로 대체되기 보다는 각각의 의제(아젠다)를 지니고 있으며, 그 사례로 지역적 환경적 필요에 따라 하이테크기술과 저기술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답안 구성 요소와 채점 기준

논제

(1) 논제 개요

사회 현상 분석과 이를 노년의 가치 구성과 연계하는 적용 능력 두 측면에서 답안을 평가한다.

(2) 답안 구성 요소와 채점 기준

답안 구성 요소

【첫째, <나>, <다>의 기술대체현상에 대한 내용 파악】

- 기술중심사회의 효율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분석한다.

- ① 기술비판론 : <나>와 <그림1>을 연결하여 분석한다. <그림1>은 효율성이 저하되기 전에 정점에서 다른 기술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기술대체곡선이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술도 인간도 정점에서 빠르게 대체된다는 의미를 파악해

야 한다.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이런 기술대체의 예이다.

- ② 기술긍정론 : <다>와 <그림2>를 연결하여 분석한다. <그림2>는 기술수준은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지만 사용은 지속된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S-곡선이다. 백열등, 형광등, LED 등처럼 신기술이 등장해도 각각의 필요에 따라 사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그래프에서 읽어낼 수 있다. 기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기술대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즉 무조건 대체가 아니라 지역적 환경적 필요에 따라 기술도 하이테크와 저기술의 공존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사회 현상을 글과 그래프를 연결하여 읽어낼 수 있는가

【둘째, <가>의 노년의 가치구성에 대한 이론을 <나>, <다>에 적용하여 해석】

- ③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관점은 노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이다. 이때 가치판단의 기준은 사회적 목표이다. 사회적 목표가 젊음이 될 때 노년은 쇠퇴가 되고, 조상과의 신령한 정신적 유대를 가치로 삼을 때 노년은 숭상된다.
- ④ 기술중심사회의 목표는 효율성이므로 신기술의 혁신이 사회적 목표가 된다. 기술의 대체주기가 짧아질수록 젊음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 노년은 쇠퇴 혹은 폐물로 규정된다. 그러나 기술긍정론의 관점에서는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이 폭력적으로 대체되기 보다는 각각의 의제(아젠다)를 지니고 있으며, 그 사례로 지역적 환경적 필요에 따라 하이테크기술과 저기술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평가기준 : 노년의 가치를 분석하는 원리를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 모범답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인문계 제 3교시 인문 논술은 ‘욕망과 행복’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세 가지의 제시문과 하나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욕망과 행복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욕망을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욕망은 채울수록 다시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억제해야 하는가? 혹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다 인정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균형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가? 제시문은 이와 관련된 교양서, 경제학 및 철학 저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별하였다. 논제는 이러한 제시문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 짓는 통합적 사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논제는 욕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들을 이해하고 행복과 관련한 최근 경제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견해들을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문 <나>에서 무한성장하는 욕망의 싹을 자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력과 이해력이 요구된다.

둘째, 제시문 <나>에서 소득 증가가 항상 행복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조사결과와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가>와 <나>라는 상반된 입장에 적용해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조주희, 『아름답게 욕망하라』, 중앙북스, 2011, 29~39쪽.

조주희의 『아름답게 욕망하라』는 성공한 외신기자인 저자가 치열한 삶을 통해 꿈을 이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이루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자는 자신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도 마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갖은 차별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었다고 말한다. 상황과 현실에 맞게 욕망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다고 말한다. 세속적인 것들을 욕망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욕망을 버리기 보다는 현명하게 이를 실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나 자신 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나> : 줄리엣 쇼어, 『제3의 경제학』, 구계원 역, 위즈덤하우스, 2011, 249~250쪽.

제시문 <나>는 소득의 증가로 인한 욕망 충족이 항상 행복을 증진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 가구가 빈곤층을 벗어나 중산층에 합류할 때까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의 증가가 그만큼의 행복 증진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의 기대치도 같이 높아지지만 만족도는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와 같이 경제적 풍요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계속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의 폭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어느 지점 이상에서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인과의 비교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소득 증가는 특정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성원 대부분의 평균적 증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소득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의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소득 증가는 결국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 : 윌리엄 어빈, 『욕망의 발견』, 윤희기역, 2008, 249~257쪽.

제시문 <다>는 철학자 윌리엄 어빈의 『욕망의 발견』에 나오는 한 사례에서 발췌했다. 『욕망의 발견』에서 어빈은 철학, 종교, 과학의 입장에서 욕망을 바라보는 입장들을 소개하고 행복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하는 데 있다고 역설한다. <다>에서는 미국의 종교 공동체 아미시(Amish)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욕망을 제어하는지 설명한다. 우선 첫째 단락에서는 아미시인들이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회적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한다고 말한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차를 타는 것은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기보다 남들과 같게 보이려는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둘째 단락에서는 집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목적인 밭갈이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는 욕망의 무한증식을 간파하고 욕망의 싹을 자르는 조치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2. 답안 구성 요소와 채점 기준

전체 채점 기준

문항의 취지에 맞게 채점 기준은 답안의 내용과 표현 모두에 강조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이 질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정도와 답안 자체의 논증구성력과 표현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였다.

논제

(1) 논제 개요

〈논제〉는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제시문 〈가〉와 〈다〉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가〉에서 말하고 있는 욕망에 대한 긍정적, 현실적 견해와 〈다〉에서 말하는 부정적 견해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둘째, 제시문 〈나〉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의 의미와 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나〉의 해석을 바탕으로 〈가〉와 〈다〉의 입장을 평가하는 부분은 〈나〉에 나오는 두 가지의 해석 즉, 욕망의 무한성과 상대성이라는 기준으로 〈가〉와 〈다〉의 욕망과 행복과의 관계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평가 핵심 기준이다.

(2) 답안 구성 요소와 채점 기준

답안 구성 요소

- ①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 비교: 욕망을 바라보는 두 입장, 즉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효과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가) 제시문 〈가〉는 욕망은 본질적으로 삶의 동력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부정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다〉는 아미시인들이 가지는 부정적 욕망관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첫째 단락에서는 사회적 욕망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려는 모습은 욕망의 상대적 한계를 간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단락에서는 욕망은 무한하게 증대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욕망이라도 근원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② 이스털린 패러독스의 의미와 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에 대한 이해:

가) 이스털린의 연구결과는 경제적 욕망 충족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의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연구결과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각각 욕망과 행복간의 관계성을 설명한다. 첫째 해석은 소득증가에 대한 행복증가의 한계효용성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기대치도 따라서 증

가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소득의 증가만큼 행복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둘째 해석은 상대적인 행복감에 대한 설명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지위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한 한 개인의 소득 증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행복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한 개인의 소득이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득도 동시에 증가하기에 우월적 행복감은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③ 〈나〉의 해석을 전제로 〈가〉와 〈다〉 평가하기: 〈나〉의 해석에서 나타난 욕망에 비례한 행복의 한계효용성과 상대적 행복감 체감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으로 욕망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가〉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다〉를 각각 비평해본다.

가) 〈가〉에 대한 평가: 〈가〉는 욕망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 에너지라고 주장하면서 욕망을 지혜롭게 가꾸고 우아하게 성취하자고 역설한다. 또한 금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해석에서 말하는 욕망의 무한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욕망은 추구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결국 통제 불가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또한 행복하다는 느낌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도 좌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가〉의 무한한 욕망충족이 반드시 행복 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나) 〈다〉에 대한 평가: 〈다〉의 첫 번째 단락은 사회적 욕망이 가지는 허구성 깨달은 아미 시인들이 이를 철저히 타율적으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은 욕망의 무한성을 깨닫고 욕망의 싹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르는 삶의 태도와 규율을 보여준다. 이렇게 욕망의 상대성과 무한성을 철저히 깨닫고 이를 원천봉쇄하려는 자세는 〈나〉에서 나타난 두 가지 해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욕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점은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의 증가는 행복감을 충족시킨다는 〈나〉의 해석과 배치된다. 즉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금욕주의적 태도는 행복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